

'지옥', '2021 골든 토마토 어워즈' 호러 부문 1위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지옥'이 미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의 '골든 토마토 어워즈'에서 2021년 최고의 호러 시리즈 1위를 차지했다. '골든 토마토 어워즈'는 로튼 토마토가 매해 최고의 영화와 시리즈를 선정해 발표하는 자체 어워드다.

로튼 토마토는 최근 " '지옥'이 공개되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97%를 유지하며 최고 점수를 기록, 2021년 호러 시리즈 1위에 올랐다."라고 밝혔다. "연상호 감독의 악마 같은 상상이 만들어낸 '지옥'은 놀라운 콘셉트로 인간의 본질을 깊게 탐구한다."고 전했다.

'지옥'은 공개 직후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 71개국 넷플릭스 톱10 리스트를 강타했다. 공개 전에는 토론토국제영화제, BFI 런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국 BBC는 "연상호 감독의 매력적이면서 섬뜩한 드라마"라고 평했다. 호주 일간지 디에이지(The Age)는 "인간의 결합, 유한함, 죄, 정의, 미디어의 영

향력 같은 주제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회자될 작품"이라고도 평했다.

디즈니+, 첫 한국 장르극 '그리드' 공개

지난해 11월 한국에 상륙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디즈니+가 첫 한국 장르극을 선보인다.

디즈니+는 19일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드'를 다음 달 16일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리드'는 디즈니가 선보이는 첫 초고화질(UHD) 오리지널 작품이다.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의 차기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그리드'는 태양풍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방어막 '그리드'를 탄생시켰던 유령(이시영 분)이 24년 만에 살인자의 공범으로 다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

기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배우 서강준, 김아중, 김무열, 김성균, 이시영 등이 출연한다. 서강준은 유령을 찾기 위해 관리국에 입사한 추적자 김재하를, 김아중은 유령을 목격한 뒤 사건을 쫓는 강력계 형사 정새벽을 연기한다.

메가폰은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 리전 감독이 잡았다.

'그리드'는 내달 16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1회씩 공개된다.



홍상수·김민희 3년 연속 베를린 경쟁행

홍상수 감독의 신작 '소설가의 영화'가 다음 달 열리는 제 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19일 해외배급사 화인켓에 따르면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이날 경쟁 부문 초청작을 발표했다.

카를로 샤프리안 집행위원장은 "베를린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 중 한 분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면서 " '소설가의 영화'는 우연한 만남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영화 세계에서 진실함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설가의 영화'는 소설가 준희가 잠적한 후배의 책방으로 먼 길을 찾아가고, 혼자 산책을 하고, 영화감독 부부와 배우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다. 지난해 칸영화제 초청작인 '당신 얼굴 앞에서'로 처음 홍 감독과 호흡을 맞춘 배우 이혜영이 주연을 맡았다.

김민희는 '소설가의 영화' 제작실장이자 준희 역을 맡아 이름을 올렸다.

날말퍼즐 정답

1 변	덕	2 레	3 저	산	4 업
화			금		5 보
7 구	8 원	9 구	리		대
	10 두	꺼	비		11 회
12 주	막		13 승	마	복
둥		14 삼	진		15 기
17 이	18 슬		겹		영
	19 하	루	살	이	20 파
					장

1404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7에 있습니다)

4		7	8				3
5				3		9	7
		1			5		
1	7						5
2			4				9
					2	3	4
	5			9	7	4	3
7	4			2		6	